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별고사  
문항카드**

**- 논술(인문) -**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노동법, 근로 계약, 근로자의 권리 보호, 경제 주체의 역할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판결 요약]**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등(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배달원(피고)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함.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프리랜서'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결함. 따라서 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근거]** ① 배달원을 포함한 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이 프로그램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없어 원고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으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② 원고는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③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④ 원고는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배달원들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나>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시장 관련법의 근로자 개념은 각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판례도 각 법령상의 근로자에 대해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근로자 판단의 공통된 핵심 개념은 '종속노동', '사용종속관계',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등이다. 현행 노동법의 규율 대상은 모든 종류의 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이며, 상위개념인 이 종속노동을 수행하며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노동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라고 본다. 또한 사용종속관계에는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즉, 종속노동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인격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인적 종속)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경제적 종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이 부상함에 따라 여러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오(誤)분류'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우버 택시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각국 법원에서 논쟁이 있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노동법이 최초로 정립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종속노동 개념이 처음 착안되었을 당시의 연원과 그 본래적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의 노동법이 규정하는 종속노동 개념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종속노동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 본질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근대 이행기의 정치적 변화는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로 요약되나, 정치적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가 종속노동이라는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속노동은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개념이기도 하다. 둘째, 종속노동에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다면, 종속노동은 인적 종속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대적 노동법을 정립한 진쯔하이머(Sinzheimer)는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타인의 처분 하에 종속되어 일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의 논지에 따르면 이는 현상에 대한 '묘사'이지 노동법을 적용받으려면 인적 종속성을 꼭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은 독해다. 진쯔하이머는 실업자처럼 현재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들도 노동법이 상정하는 노동자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감독 받지 않으면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가내노동자' 역시 노동자라고 보았다.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는 종속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적 종속성을 종속노동 내지 사용종속관계의 중심 요소로 보아 협소하게 적용하는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 <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두 시장을 교차시켜 지식과 정보, 미디어,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였다. 플랫폼이 일단 성립되고 나면 플랫폼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라진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경쟁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단면시장과 구별된다. 첫째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의 가치가 커져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주체이고 따라서 네트워크가 커져간다는 것은 플랫폼의 가치가 커져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두 시장의 네트워크가 서로 지원하면서 성장해 가기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이런 이유로 규모의 경제가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경쟁의 본질이 규모의 경제이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플랫폼 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은 시작부터 스프린터처럼 달려야 한다. 그 결과 플랫폼 경제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승자독식의 원칙이다.

이런 식의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 참여 주체 간의 호혜적 관계 구축은 애초에 논외였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한 노동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프리랜서 내지 독립사업자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건당 수수료 등의 임금 체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까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즉, 플랫폼 기업은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 관계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비껴가며 산업재해 등 위험 비용을 개별 노동자에게 외주화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표1>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상위 5개 직종 분포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배달·배송·운송	82.3	68.5	75.9
가사·청소·돌봄	4.6	5.3	-
전문서비스 (통번역·강사·상담 등)	3.3	14.5	6.2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2.8	5.9	8.5
IT 관련 서비스	2.7	1.2	2.9
미술 등 창작활동	-	-	5.2

<표2>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보험 가입 실태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
1) 고용보험				
가입		26.9	25.9	46.3
미가입		58.2	48.4	29.1
모름		14.9	25.7	24.6
2) 산재보험				
가입		27.7	28.3	43.6
미가입		52.6	43.6	28.1
모름		19.7	28.1	28.4

\* 주업형: 총수입의 50%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31.2만 명)  
 \* 부업형: 총수입의 25~50% 미만, 주당 10~20시간 미만(26.1만 명)  
 \* 간헐적 참여형: 총수입의 25% 미만, 주당 10시간 미만(8.8만 명)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2021.

1-1. <나>의 밑줄 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판결의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300±30자)

1-2.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가>~<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과 노동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해 묻고 있다. <가>는 플랫폼 노동의 일종인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현행법상 그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기술하고 있다. <나>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종속노동' 개념임을 설명하고, 이 종속노동 개념이 근대 이행기에 성립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개념임을 밝히고, 종속노동을 근로자성 여부에 협소하게 적용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넓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매커니즘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의 제반 문제점들을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표>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를 통해 현행법이 '근로자성'을 판

단하는 기준을, <나>를 통해 이 기준이 종속노동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를 통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5) 사회생활과 법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제시문 <가>, <나>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나>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시문 <다>

#####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공2018상,988]	대법원		2018.4.26.			○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이다혜	노동법 연구 제49호	2020 상반기	pp.7~14		○
『플랫폼의 생각법 2.0』	이승훈	한스미디어	2020	pp.41-45		○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배달노동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에 대한 판결사례(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 49372 판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공2018상,988])**

<가>는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이며, 피고는 배달원이다.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프리랜서'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배달원이 대행업체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정도, 출퇴근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정도,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의 방식, 근로 계약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나> :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 연구, 2020 상반기 제49호, 7~14쪽.**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 상의 '근로자' 규정은 핵심적으로 '종속노동'이라는 개념과 관련된다는 점을 밝힌다. 즉 현행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모든 노동에 해당하지 않고 종속노동을 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종속노동을 하며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인적 종속'과 근로자는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경제적 종속'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제시문은 이 종속노동 개념이 근대 이행기에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노동자 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종속노동에 출퇴근 장소·시간과 관계되는 인적 종속만이 아니라 생계 유지 여부와 관련된 경제적 종속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자 개념을 인적 종속만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도 같이 살펴 넓게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 : 이승훈 『플랫폼의 생각법 2.0』 한스미디어, 2020, pp.41-45.**

<다>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매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존에는 노동시장과 같이 생산에 관련된 시장과 상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나뉘어 있던 시장의 구분이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통합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두 영역이 교차하면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교차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교차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간 경쟁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의 독점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지문은 이처럼 플랫폼 기업이 경쟁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논제의 구성

**1. <나>의 밑줄 친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판결의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300±30자)**

(<나>의 핵심 개념)

-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

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또한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

(<가> 판결의 <관련 근거> 설명)

- 이에 기반하여 <가> 판결문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 ①은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 ②는 출퇴근 시간에 관한 것으로 인적 종속성을,

- ③는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성 여부를,

- ④는 근로계약과 임노동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용종속관계 중 경제적 종속성을 말하고 있다.

- <가> 판결문은 이러한 근거로 배달대행종사자를 '종속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다.

**2.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가>~<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600±60자)**

(<표1>과 <표2>에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

- <표1>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업 또는 부업 여부에 따른 상위 5개의 직종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그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문제점)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간주하여 고용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 또한 <가>는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결 방향)

-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lt;나&gt;의 핵심 개념을 기술】</b>          ① &lt;나&gt;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p> <p><b>【&lt;가&gt; 판결의 &lt;관련 근거&gt; 설명】</b>          ② 관련근거①은,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성 여부,          ③ 관련근거②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적 종속성 여부,          ④ 관련근거③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성 여부,          ⑤ 관련근거④는 근로계약과 임노동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용종속관계 중 경제적 종속성 여부에 해당한다.          - &lt;가&gt; 판결문은 이러한 근거로 배달대행종사자를 '종속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다.</p> <p>&lt;유의 사항&gt;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p>	
<p>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p>	1등급
<p>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p>	2등급
<p>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p>	3등급
<p>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며,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p>	4등급
<p>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두개가 부족한 경우</p>	5등급
<p>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두개가 부족하며,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p>	6등급
<p>①이 부족하고, ②, ③, ④, ⑤ 중 세개가 부족한 경우</p>	7등급
<p>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p>	8등급
<p>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p>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lt;표1&gt;과 &lt;표2&gt;에 대한 설명】</b>          ① &lt;표1&gt;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업 또는 부업 여부에 따른 상위 5개의 직종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그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과의 유추로 배달업 종사자의 위험 노출 가능성을 지적할</p>	

수도 있다.

②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수준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형태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플랫폼 노동 상황의 문제점】**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간주하여 고용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④ 또한 <가>는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해결방향】**

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④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④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③을 충족하였으나 ②, ④,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네 가지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 판결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근거 ①은 배달원에 대한 사

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②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적 종속 여부, ③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 여부, ④는 근로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종속 여부에 각각 해당한다.

## 1-2.

<표1>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노동자가 그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플랫폼 노동 참여 정도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는 현행법이 근로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경제적 유인, 동물복지론, 동물권리론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현은 아내의 주장대로 그 송장의 주머니에서 턴 것 같은, 가슴이 섬뜩한 퇴직금이지만, 그것을 밀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다. 뉘네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년이 못 돼 오십 평마당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퍼지었고, 뉘 집에서는 이백 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 되어 매월 평균 칠팔십 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다. 곧 광주 가네보 양토부로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켄으로 이십 마리를 주문하였다. 곧 목수를 데려다 토끼장을 짚다. 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풀과 아카시아잎을 뜯어 왔다. 두부 장사에게 비지도 맡기었다. 수분 있는 사료만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라 해서 건조 사료도 주문하였다. 사흘 만에 이 작고 귀여운 현의 집 새 식구 이십 명은 천장을 철사로 엮은 궤짝에 담기어 한 명도 탈 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더위에 할락거리기는 하면서도 그저 궤짝 속이 저희 안도(安堵)인 듯, 밖을 쳐다보는 일이 없이 태연히 주둥이들만 오물거리었다.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 시험관 속에서 된 무슨 화학물 같았다. 아이들과 아내는 즐기어 끄르며 덤비었으나, 현은 뒤에 물러서서 그 작은, 그 귀여운, 그리고 박꽃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오륙 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 토끼는 듣던 바와 같이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스무 마리가 아카시아잎이 단풍들 무렵에 사십여 마리가 되어 북적거리다. 토끼장도 다시 한 오십 마리 치를 늘리려 재목까지 사들이는 때다.

문제가 일어났다. 먹이의 문제다. 풀과 아카시아잎의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비지와 건조 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 두부 장사가 가끔 거른다. 오는 날도 비지를, 소위 실적의 반도 못 가져온다. 건조 사료도 선금과 배달비까지 후히 갖다 맡겼는데도 오지 않는다. 콩이 잘 들어오지 않아 두부 생산이 준 것, 그러니 두부 대신 비지 먹는 사람이 는 것, 그러니 비지는 두부보다도 더 귀해진 셈이다. (...) 현의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으나 결국 토끼를 기름으로써의 생계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끼를 헐값이라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죽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으나 산것째로는 어디서나 먹이가 문제라 길이 막히었다. 사십여 마리를 일시에 죽이자니 집안이 일대 도살장이 되어야 한다. (...) 더 늘쿠지나 말고 오래는 걸리더라도 산 채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 채로 처분하자니 팔리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나 굶겨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부드러운 풀은 벌써 거의 없어진 때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무청뿐이요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클로버뿐이다. (...) 현은 입맛을 짹짹 다시다가, “당신이 가기 싫음 내가 가리다. 오륙이 멀쩡해 가지구 미물이

라두 기르던 걸 굶겨 죽여야 옳우?"하는 아내의 위협에 아내가 홀몸도 아닌 때라, 또 다른 곳도 아니요 저희 모교 마당에 가서 토끼밥을 뜯고 앉아 있는 정상이 어째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게 머릿속에 떠올라, 그만 대팻밥 모자를 집어쓰고 동저고릿바람인 채 고무신을 끌고, 막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녀석에게 까지 다래끼를 하나 둘러메어 가지고 고개를 넘어 M 여전으로 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철이었다.

현은 어느 책사에 들렀다. 양토법에 관한 책에는 토끼의 도살법까지도 씌어 있기 때문이다. (...)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내었다. 묵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뼈들경거리고, 눈을 툭망거리고.....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 때의 화학물 감(感), 박꽃 감은 이젠 아니요, 놓기는커녕 웬만침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뼈들경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짐승'이다. 현은 도로 토끼를 갖다 넣고 만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 목을 졸라 쥐고, 뼈들적거리는 것을 이기느라고 같이 힘을 쓰며 뛰어쓰는 눈을 내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현은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 심장이 어드메쯤이라고 그 폭신한 가슴을 더듬어 송곳을 들이박기는, 남의 주사침 맞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으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 들어 있는, 마치 토끼 형상으로 꼬부리고 있을 태아를 위해 이런 짓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받을 것만 같았다.

- 이태준, <토끼 이야기>

#### <나>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다. 경제적 유인은 해당 경제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유인과 불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나뉜다. 긍정적 유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익의 증가를 통해, 부정적 유인은 편익의 감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 예를 들어 시장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수요량을 줄이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생산자에게는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 <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지능이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한다.

싱어(Singer)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는 '동물복지론'을 주장한다. 그는 동물도 인간처럼 쾌고(快樂) 감수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얼마만큼 행복이나 고통을 산출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싱어는 어떤 존재가 감각을 지니고 있다면, 그 존재가 느끼는 쾌락이건 고통이건 그들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누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지를 보고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대상을 우선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싱어의 주장이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종(種)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처우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양자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동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건(Regan)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동물권리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동물은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포유류는 삶의 주체이고,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권리란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에게 귀속되는 도덕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건, 인간 아닌 동물이건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 것이다. 이처럼 내재적 가치가 종을 초월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레건은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동물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행적인 동물 이용은 단순히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1. <가>에 나타난 '현'의 토끼 사육 결심과 포기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에 제시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대비하고, 두 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를 평가하시오. (600±60자)**

###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가>에 제시된 소설 속 주인공의 토끼 사육 행위에 대해 <나>와 <다>에 제시된 개념 및 이론을 적용할 경우 어떠한 해석 및 평가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가>에는 주인공 '현'이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 사육을 결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다. 특히 먹이 문제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고 토끼의 '도살'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현'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나>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문항은 <나>에 제시된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과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 개념을 적용하여 <가>에서 '현'이 토끼 사육을 결심하고 포기하는 동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취지에서 출제하였다.

<다>는 공리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동물복지론'과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한 '동물권리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항은 <다>의 분석을 통해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 두 이론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 각각의 입장에 근거할 때 <가>에서 서술되고 있는 '현'의 토끼 사육 행위에 대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비판적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 발문을 구성했다.

요컨대 이 문제는 '경제적 유인', '동물복지론', '동물권리론' 등의 추상적인 개념 및 이론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능력, 그리고 이를 소설에 나타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타당하게 해석 및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성취기준 1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관련 제시문 <가>, <다>
	성취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제시문 <가>
	성취기준 3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경제		
	성취기준 1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관련 제시문 <나>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 1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다>	
성취기준 2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다>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9	23쪽	제시문<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8	60-63쪽	제시문<다>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토끼 이야기>(한국소설문학대계 20)	이태준	동아출판사	1995	199-207	제시문<가>	X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태준, <토끼 이야기>, 『한국소설문학대계』20, 동아출판사, 1995, 199-207쪽**

<가>는 주인공 '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토끼 사육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현'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토끼 사육을 시작했지만 토끼의 번식 능력 탓에 개체수가 늘고, 토끼의 먹이로 쓸 비지와 건조 사료가 원활히 유통되지 않아 귀해진 상황에서 토끼장도 늘리고 먹이가 될 만한 '토끼밥'을 직접 채취하는 등 자구책을 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먹이 급여가 한계에 봉착하자 '현'은 토끼 사육을 단념하고 헐값에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토끼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책에 나온 '도살법'에 따라 토끼의 도살을 시도하지만, 그 잔인한 방법에 심리적 갈등을 겪다가 아내의 뱃속의 '태아'를 떠올리면서 토끼 도살을 단념하고 만다.

**제시문 <나> : 「경제적 유인과 선택」, 교과서 『경제』, 씨마스, 2019, 23쪽.(내용 재구성)**

<나>는 '경제적 유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 따르면,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 등을 의미하는데, 해당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특정 행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과 특정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유인으로 나뉜다. 긍정적 유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익의 증가를 통해, 부정적 요인은 편익의 감소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는 것이 <나>의 요지이다.

**제시문 <다> :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교과서 『생활과 윤리』, 2018, 60-63쪽. (내용 재구성)**

<다>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논한 두 개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공리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동물복지론'과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한 '동물권리론'이 그것들이다. <다>에 따르면, '동물 복지론'과 '동물 권리론'은 모두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존재이고,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물의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동물복지론은 쾌고 감수성에서 찾는 반면, 동물 권리론은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찾는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자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 ■논제의 구성

1. <가>에 나타난 '현'의 토끼 사육 결심과 포기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 '현'이 토끼 사육을 결심한 경제적 유인

- ▷ 현은 한정된 퇴직금을 투자할 경우, '사육 비용이 적다'는 조건은 고정된 상황에서 높은 편익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토끼 사육을 결정하였다.
- ▷ 이는 토끼의 시장 가격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끼의 번식력이 좋다는 점, 연 500% 가까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현 아내가 직접 목격한 내용이 뒷받침된다.  
("뉘네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일년이 못 돼~매월 칠팔십 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
- ▷ 이에 근거할 때, 토끼 사육은 편익의 증가가 예상될 것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의사 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현'이 토끼 사육을 포기한 경제적 유인

- ▷ 먹이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사육 비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 편익, 즉 투자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토끼 사육을 포기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 토끼 개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토끼의 먹이가 되는 비지가 귀해졌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비지와 건조 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비지는 두부보다 더 귀해진 셈")
- ▷ 이에 근거할 때, 토끼 사육을 지속하는 것은 편익, 투자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것임을 고려하여 토끼 사육 포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다>에 제시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을 대비하고, 두 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가>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를 평가하시오. (600±60자)

(1)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의 대비

▷ 공통점

-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존재이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가 없고, 종차별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부정한다.

▷ 차이점

- 동물의 도덕적 지위 부여의 근거를 동물복지론은 쾌고 감수성에서 찾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찾는다.
- 동물의 이용 가능성 인정 여부의 측면에서 동물복지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2)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토끼 사육 행위 평가

▷ 평가의 근거가 되는 '현'의 사육 행위들

- 생계 목적에서 토끼 사육 결정하고 난 직후 평안하게 지낼 안식처(安堵) 제공, 풀과 아카시아잎뿐만 아니라 비지 및 건조 사료 등의 먹이를 충분히 급여해 줌.
- 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자 그에 맞게 토끼장도 확장함. 비지 및 건조 사료의 구입이 어려워지자 토끼를 굶겨 죽일 수 없어 '토끼밥'이 될 수 있는 풀을 직접 채취하러 나섬.
- 토끼 먹이 급여가 한계에 봉착하자 토끼를 도살하려 함. 처음과 달리 토끼를 야생의 '짐승'으로 인식함. 아내 뱃속의 '태아'를 떠올리며 토끼 도살을 포기함.

▷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현'의 행위 평가

- 평가의 기준 :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행위가 토끼에게 고통 혹은 행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 토끼의 번식은 충분한 먹이 급여와 안락한 환경 제공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토끼의 행복을 증대한 것임. 또한 토끼 개체 수 증가 및 먹이 문제가 발생하자 토끼장 확장하고 스스로 먹이가 될 풀을 채취한 행위는 복지의 차원에서 굶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끼의 고통 증가의 초래를 막고자 하는 의미를 가짐.
- 이에 근거할 때, 생계 목적에서 토끼를 이용했지만 '현'의 행위는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토끼 먹이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자 내적 갈등 끝에 토끼 도살을 포기한 행위는 먹이를 충분히 주지 못해 결과적으로 토끼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도 가능.

◎ 또한, 가축으로 토끼를 키우는 행위 자체가, 토끼가 다 성장했을 경우 토끼의 목숨을 빼앗아 생계를 꾸리기 위한 전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토끼에게 죽음이라는 극단적 고통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행위 평가

- 평가의 기준 :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이므로 토끼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 이에 근거할 때, 아무리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먹이를 충분히 공급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를 사육한 '현'의 행위는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

◎ 다만, 현의 토끼에 대한 인식이 자연을 개량한 가축에서 자연 상태의 '짐승'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이 토끼의 도살을 포기가 '태아'에 내재된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해석 여하에 따라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토끼 사육 결심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해석】</b></p> <p>① &lt;가&gt;에서 현의 토끼 사육 결심은 퇴직금을 투자할 경우 토끼 번식력이 좋아 연500% 가까운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아내가 전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다.</p> <p>② 이는 &lt;나&gt;에 근거할 때, '사육 비용이 적다'는 조건은 고정된 상태에서 높은 편익이 예상된다</p>	

<p>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p> <p><b>【토끼 사육 포기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해석】</b></p> <p>③ &lt;가&gt;에서 현의 토끼 사육 포기는 토끼 개체 수의 증가와 토끼 먹이가 되는 비지와 사료가 귀해졌기 때문이다.</p> <p>④ 이는 &lt;나&gt;에 근거할 때, '사육 비용이 급등'하자 그로 인해 순편익, 즉 투자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p> <p>&lt;유의 사항&gt;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p>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어느 하나가 충분하지 못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두 개가 충분하지 못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하였으나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의 대비】</b></p> <p>① 공통점 : 고통을 느낀다. 인간처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가 없고, 종차별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부정한다.</p> <p>② 차이점 : 동물복지론은 쾌고 감수성에서, 동물권리론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 근거를 찾는다. 동물복지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p> <p><b>【동물복지론의 시각에서 '현'의 사육 행위 평가】</b></p> <p>③ 평가의 기준이 제시-토끼에게 고통 혹은 행복을 초래할 가능성</p>	

\*단 (앞의 ①, ②의 기술 과정에서 제시된 경우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 ④ '현'의 행위 긍정적 평가 : 사육환경, 먹이 공급이 토끼의 행복/고통 초래의 가능성  
 - 충분한 먹이 급여하고 안락한 환경 제공이 번식을 가능하게 함(토끼의 행복 증대)  
 - 토끼 개체 수 증가, 먹이 문제가 발생->토끼장 확장, 현이 직접 먹이 채취(굶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토끼의 고통 증가를 방지)  
 - 따라서, 생계 목적에서 토끼를 이용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래의 부정적 평가도 가능하므로 고려해야 하지만 부차적임>  
 - 토끼 도살 포기는 먹이를 충분히 주지 못해 토끼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  
 - 생계 목적의 사육 행위 자체가 극단적 고통을 초래할 도살을 전제로 했다는 점.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현'의 사육 행위 평가】

- ⑤ 평가의 기준 제시 - 토끼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님. 따라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토끼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단 (앞의 ①, ②의 기술 과정에서 제시된 경우 기술한 것으로 간주함)

- ⑥ '현'의 행위 부정적 평가 : 좋은 사육환경과 먹이를 공급하더라도 애초에 생계를 목적으로 토끼를 이용한 '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아래의 긍정적 평가의 근거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경우도 고려해야 함>

◎ 현의 토끼에 대한 인식 변화 : 가축에서 자연 상태의 '짐승'으로 / 현의 도살 포기가 '태아'에 내재된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동물권리론'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충족하고, 논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④, ⑥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④, ⑥이 부족하고 논리성과 정서법이 불충분한 경우	4등급
①,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 ⑤, ⑥이 불충분한 경우	5등급
①,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 ④, ⑤, ⑥이 불충분하고 논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⑥가 부족하면서 논리성 및 정서법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7. 예시 답안

### 2-1.

<가>에서 '현'이 토끼 사육을 결심한 것은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퇴직금이 작은 한정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토끼 사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토끼의 번식 능력이 연 500%에 가까

운 편익(투자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아내가 직접 목격한 정보를 근거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이 토끼 사육을 포기한 것은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의 작용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끼 사육을 지속할 경우, 토끼 개체 수 증가 및 먹이가 되는 비지와 사료의 공급 부족, 그로 인한 사육 비용의 급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 2-2.

<다>의 '동물 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물의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전자가 쾌고 감수성에서 찾는 데 반해 후자는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서 찾는다는 점,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동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전자는 인정하지만, 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보여 준다.

<가>는 생계를 위해 토끼 사육을 시작했지만 먹이 문제로 사육을 포기하고 토끼를 도살하고자 하지만 단념하는 '현'의 행동이 서술되고 있다. '현'의 이런 행동은 동물복지론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끼에게 안락한 환경 및 먹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 개체 수 증가하자 토끼장을 넓히고, 직접 토끼풀을 구하고자 노력한 '현'의 행동은 토끼의 행복을 증가하고 고통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권리론의 입장에서 '현'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의 토끼 사육 행위 자체가 생계 목적을 위해 토끼를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토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내 뱃속의 '태아'를 떠올려 토끼 도살을 단념한 것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